

HEADLINE NEWS

장애인 고용촉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운영 (시카고)

미국 시카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市長 직속의 태스크포스를 최근 구성하였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市당국은 물론 시카고 지역내 민간기업,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앞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 존재하는 장애요소와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실천모델을 개발하여 2003년 5월 첫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시카고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고용시장 중의 하나인 市에서 장애인 고용의 장애 제거 및 취업 확대에 모범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중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소유주이거나 운영의 주체인 기업체에 더 많은 市정부의 위탁사업을 발주하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市나 산하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www.ci.chi.il.us/Mayor/2002Press/news_press_disa_employment.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안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택지구 설계도 공모 (런던)

도시환경

- ② 도시 청정화를 위해 「수소버스」 도입 (런던)
- ③ 하수처리장에서 생성된 하수슬러지를 비료로 재활용 (뉴욕)

도시교통

- ④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버스정류장 조명시설 운영 (런던)
- ⑤ 출퇴근시 교통혼잡 완화 위해 탄력근무시간제 도입 (플로리다州: 팜 비치 카운티)
- ⑥ 지하철시설의 현대화 추진 (샌프란시스코)
- ⑦ 버스와 차고지·정류장 일대 대청소 실시 (런던)
- ⑧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감응식 교통신호시스템」 도입 (미국: 앤아버市)
- ⑨ 미국 최초로 청소년대상 교통안전 홍보 CD무료 배포 (미국: 헬레나市)

사회복지

- ⑩ 장애인을 위한 「쇼핑 기동성」 계획 추진 (런던)

행.재정

- ⑪ 보다 많은 주민 및 관광객 유치 위해 벼룩시장 개장 시간 연장 (파리)
- ⑫ 인터넷을 통해 부재자 신고 접수 및 투표방법 홍보 (베를린)

① 안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택지구 설계도 공모 (런던)

영국의 주택지구는 주거 지역으로서, 자동차 운전자들과 다른 도로이용자들이 공동으로 도로 공간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곳의 도로 공간은 보행, 자전거 타기 등 주민들의 여러 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특히, 주택지구의 주요한 특징은 도로구획방법에 따라 차량들이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지자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리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중앙정부가 후원한 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설계도 공모에 참가한 이들 61명의 설계자들이 영국 전역의 18,000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britain.or.kr/cyber)

② 도시 청정화를 위해 「수소버스」 도입 (런던)

영국 수도 런던의 종합교통체계를 담당하는 런던 수송청은 지난 5년 동안 공공 도로운송수단을 관리함에 있어 도시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런던에서는 2003년도에 수소로 운행되는 신형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영국 최대 버스운송업체인 퍼스트 그룹은 내년부터 런던에서 이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영국가스공사는 이 버스의 연료 공급에 필요한 관련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영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바르셀로나, 포르토, 캘리포니아 및 호주 등에도 「수소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www.britain.or.kr/cyber)

③ 하수처리장에서 생성된 하수슬러지를 비료로 재활용 (뉴욕)

미국 뉴욕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1,200톤의 바이오솔리드(biosolid; 하수 슬러지의 일종)가 발생해왔다. 뉴욕시는 예전에는 이를 바다에 버렸으나, 최근 연방정부법에 의해 이것이 금지되자 현재 비료와 복토제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바이오솔리드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많고 수분함유량이 적어 약간의 변형과정만 거치면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업용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오솔리드를 비료로 사용하게 되면,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토지의 질과 보수력(保水力, Water Holding Capacity)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식물들이 병충해와 가뭄에 보다 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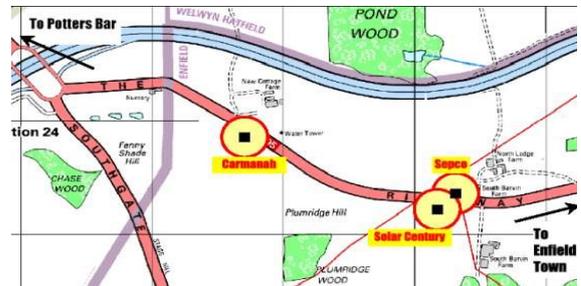
뉴욕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민간기업과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솔리드를 혼합비료 또는 농업용 석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혼합비료는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공장에서 나무톱밥 등과 섞어 만드는데, 현재 골프장, 종묘장, 개인정원, 잔디 등의 토양개량제(Soil Conditioner)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뉴저지주의 공장에서 바이오솔리드를 강알칼리성의 석회 등과 섞어 만든 농업용 석회는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www.nyc.gov/html/dep/html/bilfacts.html)

4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버스정류장 조명시설 운영 (런던)

영국 런던버스가 관리하는 런던 시내 버스정류장은 모두 10,700여 곳에 달한다. 이중 10,500여 곳은 통상적인 전기 네트워크에 의해 조명시설이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200여 곳의 정류장은 전력설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조명장치가 없다. 따라서 야간 및 심야에 버스이용자의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런던버스당국은 최근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조명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낮 시간대에 에너지를 축적해 밤 시간대에 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시스템의 실효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3곳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사진 참조).



(www.transportforlondon.gov.uk)

5 출퇴근시 교통혼잡 완화 위해 탄력근무시간제 도입 (플로리다주: 팜 비치 카운티)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카운티(Palm Beach County)는 카운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탄력근무시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행될 이번 계획은 출퇴근시 발생하는 교통혼잡 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카운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퇴근시간을 늦춤으로써 1일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주중에 휴일을 가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보다 폭넓은 시간대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은 주중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sun-sentinel.com/news/local/palmbeach/sfl-padmin29oct29,0,2033072.story?coll=sfla%2Dnews%2Dpalm)

6] 지하철시설의 현대화 추진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하철 BART는 최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보다 첨단화된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Concord역에서 첫선을 보인 최신시설들은 승차권자동판매기, 개표구(改票口), 요금충전기 등으로, 개표구에는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간단한 뉴스 등을 제공하고, 승차권자동판매기는 성능을 향상시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당국은 이 시설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지난 6개월간 Concord역에서 테스트를 시행해왔는데, 지하철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요금 및 승차권관련 장비개선사업은 BART가 10년간 추진해온 12억달러 규모의 지하철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하철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대규모 개량사업을 향후 5년 동안 1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www.bayarea.com/mld/cctimes/4296370.htm)

7] 버스안 차고지·정류장 일대 대청소 실시 (런던)

영국 런던교통당국(TfL)은 총 24억원을 투입해 런던시의 버스와 차고지, 버스 정류장을 대청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5,600여 차고지와 18,000여 정류장에 대한 청소가 계획중이다. 런던교통당국은 이번 대청소가 버스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transportforlondon.gov.uk/buses)

8]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감응식 교통신호시스템」 도입 (미국: 앤아버市)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Ann Arbor)市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180만 달러 규모의 「감응식 교통신호시스템(Adaptive Traffic Control System)」을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앤아버市에서는 199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교통신호개선사업인 이번 프로젝트의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량지체시간을 30%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호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감지하고 감지된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주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항상 최적화된 신호시간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市교통당국은 2003년 봄까지 3개 지역에 이 교통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여름까지는 도심부 교차로에도 이 신호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市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www.mlive.com/news/aanews/index.ssf?/xml/story.ssf/html_standard.xml?/base/news-2/1032084654200291.xml)

9] 미국 최초로 청소년대상 교통안전 홍보 CD 무료 배포 (미국: 헬레나市)

미국 몬태나(Montana)州에서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州전역의 중·고교에 교통안전 관련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CD-ROM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Montana Rules」라고 이름 붙여진 이 CD-ROM은 몬태나州 교통부의 재정 지원 아래 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도로안전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몬태나州 교통당국은 몬태나州 특유의 사례 및 교통법규 관련사항을 퀴즈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손쉽게 교통법규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당국은, 교사들에게는 교통안전 교육자료로, 학생들에게는 운전면허시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CD-ROM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mdt.state.mt.us/dir/scripts/newsdata.pl?newname=20021030-121429.TOP)

장애인들을 위한 「쇼핑 기동성」 계획 추진 (런던)

영국에서는 최근 「쇼핑 기동성」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쇼핑센터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이동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자원봉사자나 전기로 작동되는 보조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쇼핑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동안 이 계획 추진에 힘써온 '영국 쇼핑 기동성 촉진연합'에서는 "몸이 불편해 집에만 있던 많은 이들이 외출도 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쇼핑센터 등에서 물건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겁내는 사람들의 '쇼핑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계획이 250여 건 정도 된다고 한다.

(www.britain.or.kr/cyber)

보다 많은 주민 및 관광객 유치 위해 벼룩시장 개장시간 연장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그동안 市전역에서 열리던 소규모 벼룩시장이 주민 및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2003년부터 벼룩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市가 지난 4월 퇴근시간대에 맞추어 시청 앞 광장에서 벼룩시장을 연 결과, 매출액이 평상시의 점포 매출액보다 3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市가 주도한 벼룩시장이 인근 주민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市는 현재 시청 및 구청 앞 광장 등 공공공간에서 펼쳐지던 아침 벼룩시장과 오후 벼룩시장의 개장시간을 내년부터 배로 늘려 출퇴근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市는 우선, 올해 안으로 시청 앞 벼룩시장 등의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2003년부터는 市전역의 벼룩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르 파리지앵, 9. 24)

④ 인터넷을 통해 부재자 신고 접수 및 투표방법 홍보 (베를린)

독일의 연방 총선거가 지난 9월 22일 실시되었는데, 예전과 달리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베를린市는 부재자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소를 12군데 설치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 기타 중요한 일로 인해 당일날 주소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부재자투표에 필요한 서류를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었다.

또한 市에서는 처음 투표를 하는 시민들을 위해 투표소, 투표용지 견본과 투표방법 그리고 과거의 투표 및 선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했다. 아울러, E-mail을 통해 市선거위원회 선거 및 투표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www.statistik-berlin.de/wahlen/bundestagswahl-2002/briefwahl/antrag.htm)